

어머니의 고통을 통한 축복

역대상 4:9-10 (KRV)

9.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어머니들로 인해 존귀하다

어머니의 날을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의 아이들이 어머니들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멋진 영상-정말 보기에 큰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그리고 애리조나에 계시지 않은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어머니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분들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어머니들도 각자의 어려움과 죄를 겪었고, 우리 모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어머니들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이것은 오늘 메시지의 좋은 배경이 됩니다. 성경에 잠깐 등장하지만 다시는 언급되지 않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모두에게 큰 영향을 주어 그를 주제로 한 책까지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는 인물, 야베스입니다.

역대상 4:9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을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고통 중에 그를 낳았다’ 함이었더라.”

우리는 먼저 그의 이름 “야베스” (고통, 슬픔)와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살펴봐야 합니다. “형제”라는 단어는 모호합니다. 히브리어 *ach*는 실제 형제, 형제 공동체, 친척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러 주석과 자료를 살펴보면, 대부분 실제 형제로 번역하지만 세 가지 의미 모두 가능하다고 인정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한가?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들의 이름을 “고통”으로 지었다는 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어머니가 자녀에게 “고통”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은 매우 특이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위대한 인물의 이름을 붙입니다. 캐서린 대제, 알렉산더 대왕, 대부분의 부모처럼 자녀가 위대한 삶을 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시아 문화에서는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여겨 이름 전문가에게 의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를 “고통”이라 불렀을까요? 어떤 신학자들은 어려운 임신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출산의 고통은 모든 여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창세기 3:16

“너는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출산의 고통은 모든 어머니가 겪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야베스 어머니의 고통은 다른 종류의 고통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출산의 고통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향한 고통과 슬픔이었습니다. 바로 그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들로 인해 존귀합니다. 사실 생명 자체는 존재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생명의 유지 자체가 기적입니다. 한국에서는 100일을 넘기면 큰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유아 세례가 흔했습니다.

생명은 매우 연약합니다. 우리를 지켜준 존재는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위해 고통과 희생을 감당했습니다. 어머니의 삶 전체가 우리를 위한 희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을 기억하게 하는 이름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하나님 사랑의 확장입니다.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고통을 감당하고 슬픔을 대신 짊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듭니다. 임신부터 시작된 희생, 평생 지속되는 헌신, 이것이 야베스를 존귀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오늘 이 날에 어머니들의 희생을 기억합시다—그들의 고통, 그들의 사랑, 우리를 덮어준 보호. 물론 어머니들도 실수하고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하는 기반이 됩니다.

우리는 어머니들로 인해 하나님을 찾는다.

역대상 4:10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라.

우리는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그가 어떻게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가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를 그의 어머니가 그를 “고통”이라고 이름 지은 것에서 찾습니다.

즉, 그는 자신의 삶의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삶은 그가 계획했던 대로 되지 않았고, 그 시작은 어머니가 그를 “고통”이라 이름 지음으로써 그의 가능성과 능력을 제한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입니다. 그러나 어머니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써 우리에게 부여하는 존귀함은 우리의 모든 믿음의 기초를 세웁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르는 마음을 심어주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세기 4: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그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기를 “여호와와의 도우심으로 내가 한 사람을 얻었다” 하였더라.

창세기 4:25

아담이 다시 그의 아내와 동침하매, 그녀가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가인이 그를 죽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다른 자손을 세우셨다” 함이었더라.

하와가 두 아들에 대해 말할 때 사용하는 표현의 차이를 주목하십시오. 참고로, 아담은 이 출산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선언은 어머니 하와에게서 나옵니다. 가인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셋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이 언어의 차이를 보십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하와의 태도와 경외를 보여줍니다. 가인의 경우, 중심은 그녀와 그녀의 아들이었고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셋의 경우,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셋의 계보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셋을 하나님을 찾는 사람으로 만들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와가 아들 셋을 향해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4:26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더라.”

어머니의 믿음은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씨앗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첫 어머니 하와에게서도 그러했고, 야베스의 어머니에게서도 그러했습니다. 우리는 야베스의 어린 시절이나 그의 어머니와의 관계를 알지 못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이해해야 합니다.

첫 어머니 하와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는 어머니의 믿음. 하와의 경우, 한 아들이 다른 아들을 죽이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 역시 어떤 고난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우리는 그 열매를 셋과 야베스에게서 봅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어머니를 사용하셔서 그 믿음을 우리 안에 심으십니다. 어머니가 완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성령을 찾게 하십니다. 상황이 좋든 나쁘든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어머니들의 믿음 때문입니다! **Bridge of the Valley** 교회에 이런 어머니들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어머니들 안에 부어지셔서 그들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자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머니들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찾게 합니다. 이것은 어머니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머니들로 인해 보호받는다

우리가 강아지를 입양했을 때, 우리는 약 8주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강아지가 완전히 젖을 떼는 시기입니다—즉, 고형식을 먹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고형식을 먹을 수 있는 능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기는 강아지가 어미와 형제들과 함께 사회성과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강아지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처음 8주 동안의 적절한 신체적·사회적 돌봄은 강아지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어미가 제공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보호입니다. 제대로 젖을 떼 후, 강아지는 새로운 주인에게서 이 사랑과 보호를

찾게 됩니다. 왜 제가 이 강아지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방식이 어머니와의 관계와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이미지인 어미 곰과 새끼 곰을 떠올려 보십시오. 새끼를 보호하는 어미만큼 강력한 존재는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는 문자 그대로 우리를 육체적으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보호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장하여 오히려 어머니를 보호하는 역할을 맡게 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우리의 삶의 기복 속에서, 특히 고통을 겪을 때, 어머니는 계속해서 영적으로 우리를 보호합니다. 이 영적 보호의 가장 큰 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9:25-27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어머니께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또 제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녀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극심한 고통의 순간에 그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그 고통을 함께 짊어졌습니다. 그 육체적·영적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향해 부르짖으시면서 동시에 땅의 어머니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아래에서 어머니의 고통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고통과 슬픔, 그리고 우리를 키우기 위해 감당했던 모든 어려움을 기억할 때 어머니가 야베스의 어머니처럼 우리를 “고통”이라 부르지는 않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어머니로부터 보호받아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어머니의 보호를 알고 있을 때 우리의 필요의 순간, 고통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과 야베스처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어머니는 우리를 보호하고, 확신을 주며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반을 세워 줍니다. 믿음의 씨앗을 심어 줍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어머니를 가져본 적이 없다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어머니의 날이 특별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가족처럼 대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든 아니든 누구나 어머니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영적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아무리 상처 입은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해 그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강력한 이유는 그가 구한 내용 때문입니다. 그는 영향력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역을 구했습니다. 그는 축복을 구했습니다. 그는 보호를 구했습니다. 그는 평안과 위로를 구했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 흘려보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영향력을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보호받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평안과 위로를 받은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어머니들을 부르십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야베스처럼 기도하며 흘려보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경건한 어머니들로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가족에게 헌신하고 십자가를 지고 자녀들을 존귀함과 보호와 기도로 축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어머니에게는 이렇게 많이 하고 아버지에게는 덜 할까?” 제 기억 속의 아버지의 날은 아버지와 함께 골프를 보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날에는 항상 특별한 것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어머니의 기도와 사랑과 보호는 아버지의 사랑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머니를 높이고 어머니의 날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경건한 여성들이 일어나 다음 세대를 위해 헌신하라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그들에게 축복이 되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어머니들에게 영향력, 보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야베스의 어머니처럼 간절함으로 자녀 뿐만 아니라 영혼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오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